

2018년 11월 14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호·악재 부각 속에 혼조 마감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Vs. 국제유가 급락, 이탈리아 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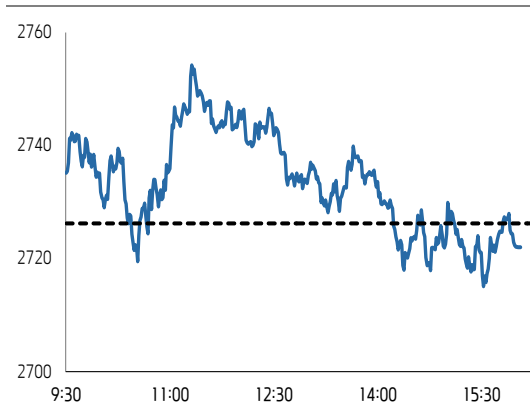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미 증시는 장중 미-중간 무역분쟁 완화에 힘입어 장중 상승. 특히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자 나스닥이 한 때 1.64% 상승 하기도 했음. 더불어 브렉시트 협상 타결 소식도 강세 요인. 그러나 국제유가가 7% 넘게 급락하고, 이탈리아 예산안 이슈가 부각되자 매물 출회. 더 나아가 애플 부품업체인 큐로브의 실적악화 경고로 애플이 하락 전환하자 상승폭 반납하며 혼조 마감(다우 -0.40%, 나스닥 +0.00%, S&P500 -0.15%, 러셀 2000 -0.26%)

미 증시는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상승을 반납하며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 상승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미-중간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 장 초반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 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중국과 무역분쟁 관련 대화를 재개했다고 언급. 특히 “매우, 매우,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주장하며 29 일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 또 다른 상승 요인은 영국-EU 간 브렉시트 관련 실무적 합의 했다는 소식. 메이 총리는 긴급히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 했으며, 이후 일정은 17 일 EU 긴급정상회담에서 관련 합의안이 통과 예정. 27 일에는 영국 의회가 협상안을 두고 의회 표결이 있음. 여기에서 통과되면 시장이 우려했던 ‘노딜 브렉시트’는 해소

반면, 악재성 재료도 있었음. 먼저 이탈리아 예산안 관련 이슈. 오늘(13 일)까지 이탈리아 정부는 수정예산안 제출 거부. 이에 대해 EU 는 21 일 법적 조치에 착수하며 이탈리아에 대해 GDP 의 0.2%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EU 지원금 삭감 할 수 있음. 그동안 회원국 중 법적 조치를 받은 국가가 없었기에 이탈리아가 제재를 받게 된다면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될 여지가 높음. 또 다른 악재성 재료는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OPEC 은 월간보고서를 통해 회원국들의 산유량이 증가했으나, 원유 수요는 하향 조정.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유가는 7% 넘게 급락하는 등 변동성 확대. 또 다른 하락 요인은 애플의 하락 전환. 애플 부품주인 큐로브가 “주요 고객의 수요 감소로 인해 실적이 악화될 것” 이라고 발표하자 상승세를 보이던 애플과 관련 부품주들이 하락 전환한 점도 부담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71.23	-0.44	홍콩항셱	25,792.87	+0.62
KOSDAQ	670.85	+0.00	영국	7,053.76	+0.01
DOW	25,286.49	-0.40	독일	11,472.22	+1.30
NASDAQ	7,200.88	+0.00	프랑스	5,101.85	+0.85
S&P 500	2,722.00	-0.15	스페인	9,145.40	+0.76
상하이종합	2,654.88	+0.93	그리스	644.00	+1.39
일본	21,810.52	-2.06	이탈리아	19,226.52	+0.9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에너지 업종 급락

엑손모빌(-2.29%), 셰브론(-1.74%), 코노코필립스(-2.18%) 등 원유 시추업체들과 솔룸베르거(-4.27%), 할리버튼(-5.53%) 등 원유 서비스 업종 등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국제유가가 7% 넘게 급락하자 하락 했다. 한편, 애플(-1.00%)은 부품 업체인 큐로브(-0.24%)가 ‘주요 스마트폰 고객의 수요 감소로 실적이 악화 될 것이다’ 라고 발표하자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했다. 이 여파로 큐로브는 물론 스카이웍(-1.04%) 등 애플 부품주들은 하락 전환 했다.

반면, GE(+7.76%)은 베이커휴즈(+0.68%) 유전사업부 지분 매각을 가속화 하며 연말까지 40억 달러의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상승 했다. 홈디포(-0.24%)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상승 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 했다. 로리어(-0.05%)도 동반 하락 전환 했다. N비디아(+5.15%)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 했다. 15일 발표되는 실적은 예상을 하회할 수 있으나, 향후 전망은 여전히 견고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데 힘입은 결과다. 마이크론(+1.10%), 인텔(+1.59%) 등 여타 반도체 업종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2.48%	대형 가치주 ETF	-0.17%
에너지섹터 ETF	-4.24%	중형 가치주 ETF	+0.02%
소매업체 ETF	-0.10%	소형 가치주 ETF	-0.22%
금융섹터 ETF	+0.56%	배당주 ETF	-0.42%
기술섹터 ETF	+0.12%	변동성 ETF	+0.92%
소셜 미디어업체 ETF	+1.40%	대형 성장주 ETF	-0.19%
인터넷업체 ETF	+0.15%	중형 성장주 ETF	+0.20%
리츠업체 ETF	+0.21%	소형 성장주 ETF	-0.49%
주택건설업체 ETF	+1.23%	신흥국 고배당 ETF	+0.64%
바이오섹터 ETF	-0.40%	신흥국 저변동성 ETF	+1.18%
헬스케어 ETF	-0.67%	하이일드 ETF	-0.14%
곡물 ETF	-0.35%	물가연동채 ETF	-0.08%
반도체 ETF	+1.29%	Long/short ETF	-0.4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83.03	-2.39%	-5.43%	-10.68%
소재	337.77	-0.29%	-1.81%	-1.22%
산업재	598.75	+0.45%	-1.15%	-5.44%
경기소비재	850.61	-0.03%	-0.76%	-3.41%
필수소비재	578.31	-0.37%	+0.07%	+5.50%
헬스케어	1,052.66	-0.68%	+0.51%	-2.19%
금융	442.96	+0.59%	-0.74%	-0.21%
IT	1,181.67	+0.09%	-2.52%	-6.20%
커뮤니케이션	146.97	-0.26%	-2.21%	-5.19%
유틸리티	278.77	+0.35%	+1.22%	+2.15%
부동산	205.31	+0.14%	+1.74%	+5.1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중국 경제지표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1.42% MSCI 신흥 지수는 1.12%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516 계약)에 힘입어 장중 한 때 0.74% 상승하기도 했으나, 미 증시가 상승폭을 반납하자 야간선물 또한 상승폭을 반납하며 0.05pt 상승한 269.4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0.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 정부가 무역분쟁과 관련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하락폭을 축소하며 마감 했다. 미 증시 또한 관련 이슈에 힘입어 장중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에 영-EU 간 브렉시트 초안에 합의 하며 시장이 우려했던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완화된 점도 미 증시 상승 요인이었다. 이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다만, 일부 요인이 전일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향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제유가가 OPEC 이 월간 보고서를 통해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를 발표한 이후 7% 넘게 급락하는 등 변동성을 키운 점은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더불어 이탈리아 예산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 애플 부품주인 큐로브가 스마트폰의 수요감소 우려를 표명하며 가이던스 하향 조정 발표 등도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시각 오전 11 시에 발표되는 10 월 중국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소매판매 등 실물경제지표도 주목된다. 시장 참여자들은 지난달 발표 수치와 같거나 소폭 개선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표 결과가 예상보다 양호하다면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될 수 있어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장 초반 매물 출회되며 조정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중국 M2 증가율 둔화

중국 10 월 M2 증가율은 전년 대비 8.0% 증가에 그치며 지난달 수치(yoy +8.3%)를 하회 했다.

중국 10 월 대출 잔액 증가도 전년 대비 13.1% 증가에 그치며 지난달 수치(yoy +13.2%)를 하회 했다.

독일 11 월 ZEW 경기 전망 지수는 전월(-24.7) 보다 개선된 -24.1 로 발표되었다. 다만, 경기 동향 지수는 전월(70.1) 보다 크게 감소한 58.2로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7% 넘게 급락

국제유가는 OPEC 월간보고서 발표 이후 7% 넘게 급락하며 연내 최저치로 하락했다. OPEC 은 회원국의 10 월 산유량이 지난달 발표보다 하루 평균 12.7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 했다. 이란 하루 평균 15.6 만 배럴 감소했으나, UAE 가 14.2 만 배럴, 사우디가 12.7 만 배럴 증가하며 전체회원국의 산유량이 증가 했다. 반면, 원유 수요는 전월 보다 2018 년에는 하루 평균 4 만 배럴, 2019 년에는 7 만 배럴 하향 조정했다. OPEC 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수요 감소를 발표했다고 주장 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와 더불어 국제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기관들의 숏포지션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수급적인 요인 또한 원유시장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중국과의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더불어 영국과 EU 가 브렉시트 관련 협상 초안을 발표하자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점 또한 달러 약세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이탈리아 예산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EU 대변인이 브렉시트 협상안에 대해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라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발표하자 파운드화와 유로화가 달러 대비 강세폭을 반납하기도 하는 등 여전히 변동성이 큰 모습이다.

국채금리는 전일 휴장이었던 점을 감안 전일 미 증시 급락을 반영하며 하락 했다. 더불어 국제유가가 급락하며 인플레이 압력이 연준 예상보다 더욱 완화될 여지가 높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14 일)을 앞두고 하락 출발후 변화를 보이기 보다는 관망세가 짙은 양상이다.

금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미-중 무역분쟁 완화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하락하기도 하는 등 보험권 혼조 마감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16% 하락 했다. 니켈은 1.09%, 아연은 0.16%, 메탄올도 1.22%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5.69	-7.07	-10.48	Dollar Index	97.185	-0.37	+0.90
브렌트유	65.47	-6.63	-9.23	EUR/USD	1.1289	+0.63	-1.21
금	1,201.40	-0.17	-2.03	USD/JPY	113.78	-0.05	+0.31
은	13.977	-0.24	-3.61	GBP/USD	1.2968	+0.93	-1.00
알루미늄	1,939.00	-0.14	-0.74	USD/CHF	1.0074	-0.35	+0.49
전기동	6,047.25	+0.10	-1.55	AUD/USD	0.7216	+0.60	-0.43
아연	2,498.50	+0.06	+0.61	USD/CAD	1.3236	-0.08	+0.85
옥수수	366.50	-1.28	-1.81	USD/BRL	3.8095	+1.17	+1.20
밀	517.75	-1.66	-1.80	USD/CNH	6.948	-0.23	+0.35
대두	878.25	-0.57	-0.68	USD/KRW	1133.30	-0.05	+0.85
커피	112.75	-1.10	-4.16	USD/KRW NDF1M	1130.75	-0.72	+0.86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140	-4.22	-8.79	스페인	1.603	+0.50	+2.20
한국	2.207	-0.30	-8.50	포르투갈	1.944	0.00	+4.90
일본	0.114	-0.50	-1.70	그리스	4.428	+3.70	+11.40
독일	0.409	+1.10	-2.50	이탈리아	3.443	+0.80	+4.90